

01 -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정답> ②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된 (가) 시대를 대표하는 서울 암사동 유적에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주요 체험 프로그램으로 '빚살무늬 토기 만들어 보기', '갈대를 이용하여 움집 짓기', '갈돌과 갈판으로 곡식 갈아보기'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 시대'는 신석기 시대임을 알 수 있다.

신석기 시대에는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원시적 수공업).

오답 해설>

① 돌방무덤[석실분, 석실묘]에 시신을 매장한 것은 삼국 시대의 일이다. 돌로 널방(널을 안치하는 방)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쌓아 올려 봉토로 만든 무덤이다.

③ 명도전, 반량전 등의 (중국) 화폐를 사용한 것은 초기 철기 시대의 일이다.

④ 쟁기,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를 사용한 것은 삼국 시대의 일이다. 여기서 쟁기는 논이나 밭을 가는 쓰는 농기구이고, 쇠스랑은 땅을 파헤쳐 고르거나 두엄·풀무덤 등을 쳐내는 데 쓰는 농기구이다.

⑤ 거푸집을 이용하여 비파형 동검을 제작한 것은 청동기 시대의 일이다.

02 - 초기 국가, 옥저와 고구려

정답> ②

'철기 시대에 등장한 나라들의 혼인 풍속'에 대한 문제이다. 가운데 말풍선에는 '(가)에는 혼인을 약속한 여자 아이를 데려다 키워서 며느리로 삼는 민며느리제가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가)'는 초기 국가, 옥저의 민며느리제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른쪽 말풍선에는 '(나)에는 혼인 후 신랑이 신부의 집 뒷편에 지어진 서옥에 살다가 자식이 장성하면 신랑 집으로 함께 돌아가는 풍습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나)'는 초기 국가, 고구려의 서옥제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서옥(壻屋)'의 '서' 자는 '사위 서', '옥' 자는 '집 옥'이다. 따라서 '서옥'이란 말 그대로 '사위의 집'을 뜻한다.

초기 국가, 옥저에서는 가족의 유골을 한 목곽에 안치하는 풍습, 곧 일종의 가족공동묘제인 '골장제'가 있었다.

오답 해설>

① 여러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한 나라는 (옥저가 아니라) 부여이다.

③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던 나라는 (고구려가 아니라) 동예이다.

④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왜에 수출한 나라는 (고구려가 아니라) 삼한 중 하나인 변한이다.

⑤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던 나라는 (옥저나 고구려가 아니라) 삼한이다.

03 -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신라 구원

정답> ⑤

'경자년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고구려군이 막 도착하니 왜적이 퇴각하였고, 그 뒤를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니 성이 항복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신라 매금이 조공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400년에 신라를 구원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가야와 왜적이 연합하여 신라 공격).

고구려의 신라 구원으로 말미암아 고구려의 세력이 한반도 남부 지방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금관가야의 세력이 쇠약해져 전기 가야 연맹이 해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후 가야는 대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후기 가야 연맹의 결성으로 나아갔다(즉, 가야 연맹의 중심지가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이동).

오답 해설>

① 백강 전투가 발생한 것은 백제가 나당 동맹군에 의해 붕괴된 시기인 663년의 일이다.

② 안동도호부가 (처음 평양에) 설치된 것은 고구려가 멸망한 668년의 일이다. 참고로 안동도호부는 이후 만주 이곳저곳으로 옮겨 설치되다가 안록산의 난을 계기로 758년에 최종 폐지되었다.

③ 백제가 사비(지금의 부여)로 천도한 것은 성왕 16년인 538년의 일이다.

④ 나당 동맹이 결성된 것은 648년(진덕 여왕 2)이다(대외적으로 나당 동맹이 표명된 것은 650년). 나당 연합군이 실제로 처음 결성된 것은 660년의 일이다.

04 - 백제 무령왕

정답> ③

'사진은 백제의 왕릉에서 발견된 묘지석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무령왕릉). 이어 '백제 왕릉 중 피장자가 밝혀진 최초의 사례로, 묘지석에 '사마왕'이 (가)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묘지석에는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나이가 62세가 되는 계묘년 5월 임진일인 7일에 돌아가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 속 (가)는 백제의 제25대 왕인 무령왕(재위 501-523)임을 알 수 있다.

무령왕은 지방에 22담로를 두어 왕족을 파견하였다.

오답 해설>

① 금마저(지금의 전북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한 왕은 백제의 무왕(재위 600-641)이다(639, 무왕 40).

② 윤충을 보내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한 왕은 백제의 의자왕(재위 641-660)이다(642, 의자왕 2).

④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하게 한 왕은 백제의 근초고왕(재위 346-375)이다(375, 근초고왕 30).

⑤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한 왕은 백제의 침류왕(재위 384-385)이다(384, 침류왕 원년).

05 - 통일 신라 시대의 모습(9세기)

정답> ④

'오시(午時)에 북서풍이 불었으므로 돛을 올리고 나아갔다. 미시(未時)와 신시(申時) 사이에 적산의 동쪽 언저리에 도착하여 배를 정박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문등현 청녕향 적산촌이 위치하고 있고, 산에는 적산 법화원이라는 절이 있는데, 본래 장보고가 처음으로 세운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는 장보고(?~846)가 활동하던 9세기 전반기와 관련이 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출처가 『입당구법순례행기』로 나와 있는데, 일본의 승려 엔닌(794~864)이 당의 불교 성지를 돌아보고 온 후 이를 기록한 여행기(838~847)이다.

(당의) 빈공과에 신라의 6두품 출신 유학생들이 응시한 것은 통일 신라 시대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원의 농서인) 농상집요가 이암에 의해 소개된 것은 14세기 전반기의 일이다.
- ② 만권당이 (충선왕에 의해 원의 북경에) 세워진 것은 1314년(충숙왕 원년)의 일이다.
- ③ 매소성 전투가 벌어진 것은 675년(문무왕 15) 9월의 일이다.
- ⑤ 주류성에서 백제 부흥 운동을 벌인 것은 660년에서 663년 사이의 일이다(왕족(의자왕의 사촌 동생)인 복신과 승려 도침 주도). 주류성의 위치는, 지금의 충남 서천군 한산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06 - 신라 지증왕 대의 사실

정답> ③

'전진 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파견하여 불상과 경문을 보내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왕이 사신을 보내 답례로 방물(方物)을 바쳤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태학을 세우고 자제를 교육시켰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전진의 순도에 의해 불교가 전파되고, 태학이 세워진 것은 모두 고구려의 제17대 왕인 소수림왕 대(재위 371-384)의 일이다(둘 다 소수림왕 2년인 372년의 일). 참고로 '방물'은 고구려의 특산물을 가리킨다.

따라서 제시된 사실은 (다) 시기에 해당한다.

07 - 신라 지증왕 대의 사실

정답> ②

위의 사료에는 '영을 내려서 순장을 금지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전에는 국왕이 죽으면 남녀 각각 다섯 명씩을 순장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금지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순장 금지는 신라 제22대 왕인 지증왕(재위 500-514) 3년인 502년에 있었던 일이다.

아래의 사료에는 '주주(州主)와 군주(郡主)에게 각각 명하여 농사를 권장케 하였고, 처음으로 소를 부려서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우경의 시작이 이처럼 사료에 나온 것은 지증왕 3년인 502년의 일이다(즉 사료상의 우경 시작 기록, 실질적으로 그 이전부터 우경이 실시된 것으로 짐작).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킨 것은 지증왕 13년인 512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병부가 설치된 것은 법흥왕 4년인 517년, 상대등이 설치된 것은 법흥왕 18년인 531년의 일이다.
- ③ 불국사 삼층 석탑이 건립된 것은 경덕왕 10년인 751년경으로 추정된다.
- ④ 화랑도가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된 것은 진흥왕 37년인 576년의 일이다.
- ⑤ 지방관 감찰을 목적으로 외사정이 파견된 것은 문무왕 13년인 673년의 일이다.

08 - 통일 신라 신문왕 대의 사실

정답> ④

'오늘은 감은사를 완성한 왕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는 동해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유언을 남긴 선왕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은사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김흠돌의 난(681)을 진압하고 진골 귀족을 숙청하여 왕권을 강화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는 신라의 제31대 왕인 신문왕(재위 681-692)임을 알 수 있다. 유학 교육을 위해 국학을 설립한 것도 신문왕 대의 일이다(682, 신문왕 2).

지방 행정 제도를 9주 5소경으로 정비한 것은 신문왕 5년인 685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한 것은 성덕왕 대의 일이다(722, 성덕왕 21).
- ②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것은 법흥왕 대의 일이다(536, 법흥왕 23).
- ③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여 관리를 채용한 것은 원성왕 대의 일이다(788, 원성왕 4).
- ⑤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한 것은 지증왕 대의 일이다(509, 지증왕 10).

09 - 발해

정답> ①

1일차 경로로 '서고성 터(중경 현덕부로 추정)'와 '하남둔 고성 터'가 제시되어 있다. 이어 2일차 경로로 '용두산 고분군(정효 공주묘, 순목 황후묘, 효의 황후묘)'가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성 터와 고분군은 발해와 관련된 문화유산들이다. 이를 통해 '(가) 국가'는 발해임을 알 수 있다. 정효 공주는 발해 제3대 문왕의 넷째 공주이고, 효의 황후는 문왕의 비, 순목 황후는 제9대 간왕의 비이다.

중앙군으로 9서당을 편성한 국가는 통일 신라이다(687, 신문왕 7).

오답 해설>

- ② 중정대는 발해의 감찰 기관이다.
- ③ 전성기[선왕 대인 9세기 전반]에 해동성국이라고도 불렸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인안'이라는 연호는 무왕 대에, '대흥'이라는 연호는 문왕 대에 사용하였다.
- ⑤ 5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 제도를 마련한 것은 제10대 선왕 대이다.

10 -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

정답> ④

'삼국 시대의 탑'이라는 제목 하에 '국보 제30호로 현재 남아 있는 신라 석탑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았다는 점이 특징이며, 선덕 여왕 3년(634)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상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탑은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이다. 국보 제30호이며, 분황사 창건과 함께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오답 해설>

- ① 발해의 영광탑이다. 중국 지린성 창바이조선족자치현 서북쪽 탑산에 위치해 있다. 8~10세기에 건립된 발해 시대의 누각식 전탑(모전 석탑)으로 창바이 영광탑 또는 발해 전탑으로도 불린다. 1908년 장평타이라는 청의 관리가 이 탑에 대해 공사 사당의 영광전(靈光殿)처럼 오랜 세월 속에서도 의연하게 남아 있다고 평한 뒤로 영광탑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②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다(7세기). 국보 제9호이다.
- ③ 제천 장락사지 칠층 모전 석탑이다. 보물 제459호이다. 통일 신라 말이나 고려 초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한다.
- ⑤ 경주 불국사 다보탑이다. 국보 제20호이며, 조형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통일 신라 석조 미술의 백미로 평가받고 있다.

11 - 고려의 후삼국 통일

정답> ③

(가) '견훤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 고창군(古昌郡)의 병산 아래에 가서 태조와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930년에 벌어졌던 고려와 후백제의 '고창(지금의 경북 안동) 전투'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태조는 정예 기병 5천을 거느리고 공산(公山) 아래에서 견훤을 맞아 크게 싸웠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태조의 장수 김락과 신승겸이 죽고 태조는 겨우 죽음을 면하였다'는 내용이 나오는 바 이를 통해 제시된 사건은 927년 공산(지금의 대구)에서 벌어졌던 '공산 전투'임을 알 수 있다.

(다) '[태조가] 뜰에서 신라왕이 알현하는 예를 받으니 여러 신하가 하례하는 함성으로 궁궐이 진동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신라국을 폐하여 경주라 하고, 그 지역을 [김부에게] 식읍으로 하사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사건은 신라의 제56대 왕이자 마지막 왕인 경순왕(재위 927-935)의 고려 귀순으로 신라가 망한 일임을 알 수 있다(935, 고려 태조 18).

(라) '태조가 …… 일선군으로 진격하니 신검이 군사를 거느리고 막았다. 일리천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후백제의 장군들이 고려 군사의 형세가 매우 큰 것을 보고, 갑옷과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사건은 고려와 후백제(신검의 군사)가 마지막으로 맞붙은 일리천(지금의 경북 구미) 전투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936, 고려 태조 19).

이상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나)-(가)-(다)-(라)'가 된다.

12 - 고려 성종이 추진한 정책

정답> ①

'몇 해 전에 설치한 12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각 1명씩 파견하여 지방의 인재를 가르치고 깨우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아울러 지방관들은 지역의 인재를 중앙으로 천거하도록 하여 이것을 항구적인 법식으로 삼도록 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12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한 것은 고려 성종 6년인 987년의 일이고, 지방관들에게 지역의 인재를 중앙으로 천거하도록 한 것은 성종 11년인 992년의 일이다. 성종은 재위 중에 이와 같은 조치를 자주 취하였다.

고려 성종은 지방 세력 통제를 위해 향리제를 정비하였다(983, 성종 2). 요컨대 호장, 부호장과 같은 향리 직제를 마련하였다.

오답 해설>

- ② 주전도감을 설치(1097, 숙종 2)하여 해동통보를 발행한(1102, 숙종 7) 것은 고려 숙종 때(재위 1095-1105)의 일이다.
- ③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실시한 것은 고려 광종 9년인 958년의 일이다.
- ④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한 것은 고려 태조 19년인 936년의 일이다.
- ⑤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개칭하고 유학 교육을 강화한 것은 고려 공민왕 16년인 1367년의 일이다.

13 - 고려의 대거란 정책(나성 축조)

정답> ②

'소손녕이 서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소유인데, 너희들이 침범해 왔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서희가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바로 고구려의 옛 땅이기 때문에,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하였다. 만일 국경 문제를 논한다면, (가)의 동경(東京)도 모조리 우리 땅에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 속 '(가)'는 고려에 침입해온 '거란'임을 알 수 있다.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 고려는 개경에 나성을 쌓았다. 강감찬의 제의로 시작되었으며 이가도가 공사 책임자였다. 1009년(목종 12)에서 1029년(현종 20)까지 21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었다.

오답 해설>

- ① 별무반을 보내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9성을 축조한 것은 고려 예종 2년인 1107년의 일이다.
- ③ (명의 철령위 설치 통보에 대하여) 최영을 중심으로 요동 정벌을 추진한 것은 우왕 14년인 1388년의 일이다.
- ④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약과 화포를 제작한 것은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였다.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이 설치된 것은 우왕 3년인 1377년이고, 1380년 진포 대첩에서 화포를 활용하여 왜구를 크게 격파하였다.
- ⑤ (원[몽골]의)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한 것은 공민왕 5년인 1356년의 일이다.

14 - 보조국사 지눌(송광사)

정답> ④

'순천시 조계산에 자리한 송광사'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해인사, 통도사와 함께 우리나라 삼보사찰(三寶寺刹) 중 하나로, 16명의 국사를 배출하여 승보사찰(僧寶寺刹)로 불린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보조국사) 지눌이 정혜쌍수와 돈오점수를 내세우며 결사 운동을 펼친 곳이 바로 (전남 순천에 소재한) 송광사[수선사, 정혜사 등으로도 불림]이다.

오답 해설>

- ① (보각국사) 일연이 삼국유사를 집필한 곳은 경북 청도 운문사이다(1281, 충렬왕 7).
- ② (화쟁국사) 원효가 금강삼매경론을 저술한 곳은 경주 분황사 등의 사찰로 추정된다(7세기 중·후반).
- ③ (대각국사) 의천이 신편제종교장총록을 편찬한 곳은 개경 흥왕사로 추정된다(1090년대)
- ⑤ (월묘국사) 요세가 법화 신앙을 바탕으로 백련 결사를 이끈 곳은 전남 강진의 만덕사[백련사]이다(13세기 전반).

15 - 황룡사 구층 목탑 소실(대몽 항쟁)

정답> ⑤

(가)에서 '최우가 왕에게 아뢰어 속히 대전(大殿)에서 내려와 서쪽 강화도로 행차할 것을 청하였으나, 왕이 망설이고 결정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최우가 집안의 재물을 강화도로 옮기니, 수도가 흥흥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최우가 몽골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해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일(강화도 천도)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232, 고종 19).

(나)에서 '재추(宰樞)가 옛 수도로 다시 천도할 것을 회의하고 날짜를 정해 게시하였으나, 삼별초가 다른 마음을 품고 따르지 않으면서 함부로 부고(府庫)를 개방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조정의 개경 환도 결정에 반발하여 삼별초가 대몽 항쟁을 이어나간 일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1270, 원종 11). 참고로 여기서 '재추'란 중서문하성[재부]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신[추밀]로 곧 정책상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2품 이상의 재상들을 뜻한다. 또 '부고'란 관청의 문서나 재물 등을 보관하는 곳집(창고)이다.

외적[몽골병]의 침입을 받아 황룡사 구층 목탑이 소실된 것은 몽골의 3차 침입 시인 1238년(고종 25)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인사 행정을 담당하던 정방이 폐지된 것은 고려 창왕 즉위년인 1388년의 일이다. 충선왕과 충목왕, 공민왕 때 폐지되었다가 다시 설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정방이 무신 집권자인 최우에 의해 처음 설치된 것은 고려 고종 12년인 1225년의 일이다.
- ② 만적이 개경에서 신분 해방을 도모한 것은 고려 신종 원년인 1198년의 일이다.
- ③ 묘청이 중심이 되어 서경 천도를 주장한 것은 고려 인종 13년인 1135년의 일이다.
- ④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것은 고려 의종 24년인 1170년의 일이다.

16 - 원 간섭기의 사실

정답> ②

'혼도·홍다구·김방경이 일본의 세계촌 대명포에 이르러 통사 김저로 하여금 격문으로 이들을 회유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여러 군사가 일기도(一岐島)로 향할 때 수군 130명과 뱃사공 36명이 풍랑을 만나 행방을 잃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혼도, 홍다구, 김방경이 일본으로 원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바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는 원 간섭기에 단행된 여몽 연합군의 일본 원정(1차는 원종 15년인 1274년에, 2차는 충렬왕 7년인 1281년에 행해짐)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원 간섭기에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확산되었다.

오답 해설>

- ① 왕조 교체를 예언하는 정감록이 유포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③ 교정도감이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부상한 것은 최씨 무신정권기에서의 일이다(희종 5년인 1209년에 최충헌이 설치).
- ④ 이자겸(?~1126)이 왕실의 외척이 되어 권력을 독점한 것은 12세기 초의 일이다
- ⑤ 김사미와 효심이 가혹한 수탈에 저항하여 봉기한 것은 고려 명종 23년인 1193년의 일이다.

17 - 충북 청주의 역사적 사실

정답> ③

'정북동 토성', '상당산성' '흥덕사지', '용두사지 철당간', '청남대'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모두 충북 청주에 있는 문화유산이다. 여기서 '당간(幢竿)'이란 한자뜻 그대로 커다란 깃발(幢), 불화를 그린 기를 달아 세우는 장대를 가리킨다. 즉 사찰[절]에서 불화를 그린 기를 달아 세우는 데 사용한 도구이다. 찰간, 장간, 정간, 기간, 치간, 번간, 범장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는데, 나무나 돌, 구리·쇠 등으로 만들었다. '용두사지 철당간'은 고려 광종 13년(962)에 세워졌으며, 정식 명칭은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이다.

금속 활자로 직지심체요절이 간행된 곳은 충북 청주의 흥덕사이다(1377, 우왕 3).

오답 해설>

- ① 유형원(1622~1673)이 반계수록을 저술한 곳은 전북 부안이다(1659~1664 집필 추정). 구체적으로는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우반동이다.
- ② 안승을 왕으로 하는 보덕국이 세워진 곳은 전북 익산[금마저]이다(674).
- ④ 백제와 신라 사이에 황산벌 전투가 벌어진 곳은 충남 논산이다(660).
- ⑤ 전태일(1948~1970)이 근로 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곳은 서울이다(1970). 구체적으로는 서울 중구(동대문과 동대문역사문화박물관(구 서울운동장) 사이 청계천 변 가까이)에 형성된 의류전문 도매상가인 이른바 '평화시장'에서였다.

18 - 고려 시대의 사회 모습

정답> ⑤

'왕이 명하기를, 개경 내의 백성들이 역질에 걸렸으니 마땅히 구제도감을 설치하여 이들을 치료하고, 또한 시신과 유골은 거두어 묻어서 비바람에 드러나지 않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관리들을 나누어 보내 동북도와 서남도의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여기서 제시된 '구제도감'은 고려 시대에 병자의 치료와 빈민 구제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다. 상설 기관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 임시로 설치되었는데, 제시된 자료와 같이 고려 예종 4년(1109) 5월 개경에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여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시체가 거리에 방치되는 사태로 번지자 구제도감을 설치한 것을 들 수 있다. 예종 원년(1106)의 동서 제위도감, 충목왕 4년(1348)의 진제도감, 공민왕 3년(1354)의 진제색도 이와 유사한 기관이다.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도와주는 제위보가 운영된 것도 고려 시대의 일이다(963, 광종 14).

오답 해설>

- ① 을파소의 건의로 진대법이 실시된 나라는 고구려이다(194, 고국천왕 16).
- ②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 구황철요가 발간된 것은 조선 시대의 일이다(1554, 명종 9).
- ③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이 편찬된 것도 조선 시대의 일이다(1429, 세종 11).
- ④ 국산 약재와 치료 방법을 정리한 향약집성방이 간행된 것도 조선 시대의 일이다(1433, 세종 15).

19 - 조선 세종 대의 사실

정답> ⑤

'(제시된) 그림은 왕의 명을 받은 최윤덕 장군 부대가 올라산성에서 여진족을 정벌하는 장면'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 결과 조선은 압록강 유역을 개척하고 여언·자성·무창·우예 등 4군을 설치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처럼 4군이 개척된 것은 조선 세종 15년인 1433년의 일이다. 다른 말로 이를 이른바 '파저강 토벌'이라고도 부른다. '이만주'는 여진족 족장의 이름이다.

(일본과)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한 계해약조가 체결된 것은 세종 25년인 1443년의 일이다. 세견선은 50척으로, 세사미 두는 200석, 삼포에 머무르는 자의 체류 기간은 20일로 하는 것 등을 규정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이 추진된 것은 효종 대(재위 1649-1659)의 일이다. 어영청이 설치된 것은 인조 2년인 1624년이다.
- ②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이 설치된 것은 정조 9년인 1785년의 일이다.
- ③ 강홍립 부대가 사르후 전투에 참전한 것은 광해군 11년인 1619년 3월의 일이다.
- ④ 예도 막부의 요청에 따라 통신사가 파견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전반기의 일이다. 선조와 광해군 대는 일시적으로 '회답 겸 쇄환사'라는 칭호를 쓰다가 인조 14년(1636)에 이르러 통신사라는 칭호를 다시 사용하였다.

20 - 홍문관

정답> ②

'조선 시대 옥당, 옥서로 불렸던 (가)'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가)은 집현전의 기능을 이었으며, 직제에는 영사, 대제학, 부제학, 응교, 교리 등이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는 성종 9년인 1478년에 설치된 홍문관임을 알 수 있다. 제시된 옥당선생안은 조선 시대 홍문관직을 역임하였던 사람들의 인명부이다.

홍문관은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3사로 불렸다.

오답 해설>

- ①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한 기구는 한성부이다.
- ③ (정조 대) 검서관에 서얼 출신 학자들이 기용된 기구는 규장각이다
- ④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전반을 총괄한 기구는 비변사이다.
- ⑤ 국왕 직속 사법 기구로 반역죄, 강상죄 등을 처결한 기구는 의금부이다.

21 - 조선 세조 대의 사실

정답> ③

'성삼문이 아버지 성승 및 박팽년 등과 함께 상왕의 복위를 모의하여 중국 사신에게 잔치를 베푸는 날에 거사하기로 기약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왕이 친히 국문하면서 꾸짖자 성삼문이 소리치며 말하기를, 상왕을 복위시키려 했을 뿐이라면서 하늘에 두 개의 해가 없듯이 백성에게도 두 임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한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왕'은 조선의 제7대 국왕인 세조(재위 1455-1468)임을 알 수 있다.

함길도 토착 세력(호족)인 이시애가 난을 일으킨 것은 조선 세조 13년인 1467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유자광의 고변을 계기로 남이(1441~1468)를 처형한 왕은 조선의 제8대 왕인 예종(재위 1468-1469)이다(1468, 예종 즉위년).

② 변급, 신류 등을 파견하여 나선 정벌을 단행한 왕은 조선의 제17대 왕인 효종(재위 1649-1659)이다[1654(효종 5), 1658(효종 9) 두 차례 단행].

④ 인목 대비 유평(1618)와 영창 대군 사사(1614)를 명분으로 폐위된 왕은 조선의 제15대 왕인 광해군(재위 1608-1623)이다(인조반정, 1623).

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계문신제를 시행한 왕은 조선의 제22대 왕인 정조(재위 1776~1800)이다(1781, 정조 5).

22 - 천주교

정답> ⑤

'이것은 황사영이 쓴 백서'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백서에는 (가)에 대한 정부의 탄압 상황과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외국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는 내용 등이 쓰여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여기서 황사영(1775~1801)은 초창기 천주교 지도자 중의 한 사람으로, '황사영 백서'란 황사영이 1801년(순조 원년)에 일어난 신유박해의 전말과 그 대응책을 흰 비단에 적어 청 북경의 구베아(Alexander de Gouvea) 주교에게 보내고자 한 밀서를 가리킨다.

의민단은 만주[간도]에서 천주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무장 독립운동 단체이다(1919.4).

오답 해설>

①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한 종교는 천도교이다(1920년 개벽사 설립, 개벽은 1920년 6월, 신여성은 1923년 9월에 발행).

② 하늘에 제사 지내는 초제를 거행한 종교는 도교이다.

③ 동경대전(1880)과 용담유사(1881)를 경전으로 삼은 종교는 동학이다. 동학은 후에 제3대 교조 손병희(1861~1922)에 의해 천도교로 명칭을 바꾸었다.

④ 박종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과 간척 사업)을 추진한 종교는 원불교이다(1910년대 후반과 1920년대 전반).

23 - 기묘사화

정답> ②

'정국공신을 개정하는 일로 전지하기를, 충신이 힘을 합쳐 나를 후사(後嗣)로 추대하여 선왕의 유업을 잇게 하니'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초기에 일이 황급하여 바르게 결단하지 못하고 녹공(錄功)을 분수에 넘치게 하여 뚜렷한 공신까지 흐리게 하였으니'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참고로 여기서 '錄'자는 '기록할 녹'이다). 마지막으로 '내 어찌 공훈 없이 헛되이 기록된 것을 국시(國是)로 결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추가로 바로 잡아서 공권(功券, 공신에게 지급하던 포상 문서)을 맡게 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는 1506년 중종반정으로 왕이 된 조선의 중종이 정암 조광조(1482~1519)의 위훈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내린 전지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위훈 삭제에 반대한 남곤, 심정 등의 고변으로 조광조 일파가 축출되는 기묘사화가 발생하였다(1519, 기묘사화).

오답 해설>

①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난 것은 1589년의 일이다(선조 22).

③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이언적 등이 화를 입은 것은 명종 2년인 1547년의 일이다. 외척으로 정권을 잡고 있던 윤원형(소윤) 일파가 자신들의 '잔여' 정적들을 숙청한 사건으로(명종 원년인 1545년에 이미 을사사화로 대운 세력 숙청), 정미사화라고도 불린다.

④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김일손 등의 사림이 처형된 것은 무오사화 때의 일이다(1498, 연산군 4).

⑤ 공신 책봉에 불만을 품고 이괄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인조 2년인 1624년의 일이다.

24 - 조선 후기의 모습(곤여만국전도)

정답> ③

왼쪽 말풍선에는 '한글로 쓰인 을병연행록에 대해 말씀해 달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오른쪽 말풍선에는 '연행사 일행으로 흥대용이 연경에 갔던 시기에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것(즉 사행일기)'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담헌 흥대용(1731~1783)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중상학파(이용후생학파) 실학자이다.

곤여만국전도는 1602년(선조 35)에 이탈리아인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명의 북경에서 제작한 것을 1708년(숙종 34)에 조선에서 모사한 세계 지도이다.

오답 해설>

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이 문을 연 것은 1885년(고종 22)의 일이다.

② 도병마사는 고려 시대의 국방 회의 기구이다. 원 간섭기 이후에는 국가 최고 회의 기구로 발전하였다.

④ 당백전이 주도된 것은 1866년 11월의 일이다. 6개월여 동안만 유통되었다.

⑤ 벽란도는 황해도 예성강 하류에 위치한 고려 시대의 국제 무역항이다.

25 - 대동법

정답> ④

'이 비는 김육의 건의로 (가)이/가 호서 지방에 시행된 것을 기념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삼남 지방으로 통하는 길목에 세워졌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김육은 경기도에 처음 시행된 (가)을/를 호서 지방에도 실시하여 방납의 폐단으로 고통받는 백성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자료에서 제시된 '(가)'는 광해군 즉위년인 1608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대동법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호서 지방'은 오늘날 충청남·북도를 가리키며, 이 지역에 대동법이 시행된 것은 효종 2년인 1651년의 일이다.

대동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게 되었다.

오답 해설>

- ① 양반에게도 균포를 부과한 것은 호포법이다. 흥선 대원군 때 비로소 시행되었다(1871, 고종 8).
- ②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을 거둔 것은 균역법 때의 일이다(1750, 영조 26).
- ③ 풍흉에 따라 전세를 9등급으로 차등 과세한 것은 연분9등법이다(1444, 세종 26).
- ⑤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선무군관포를 징수한 것은 균역법 때의 일이다.

26 - 조선 영조 대의 사실

정답> ④

'이 책(통정공 무신일기)은 이승원이 무신난(戊申亂)의 전개 과정을 기록한 일기'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무신난은 이인좌, 정희량 등이 세제(世弟)였던 (가)의 즉위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일으킨 반란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무신란이라고 하면 잘 모를 수 있는데, 곧 영조 4년인 1728년에 일어난 '이인좌의 난'을 가리킨다. 정권에서 배제된 소론(이인좌와 정희량) 주도로(남인의 일부 과격파 참여) 무력을 통해 정권 탈취를 기도(밀풍군 탄을 임금으로 추대)한 사건이다.

영조는 재위 18년인 1742년에 성균관 반수교 위에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오답 해설>

- ① 허적과 윤희 등 남인들이 대거 축출된 것은 경신환국 때의 일이다(1680, 숙종 6).
- ②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이정청이 설치된 것은 임술[진주] 농민 봉기 때의 일이다(1862, 철종 13)
- ③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된 것은 현종 때의 일이다(1659/1674).
- ⑤ 왕조의 통치 규범을 재정비한 대전통편이 편찬된 것은 정조 때의 일이다(1785, 정조 9).

27 -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

정답> ②

왼쪽 말풍선에는 '어제 송파장에서 산대놀이를 봤는데, 탈을 쓴 놀이꾼들의 춤과 소리가 신명'났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오른쪽 말풍선에는 '송파 나무를 순시하던 수어청 병사들도 흥겹게 보고 있'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송파장에서 산대놀이라는 가면극이 벌어진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또 수어청은 인조 4년인 1626년에 편성된 군영으로 남한산성 일대의 방어를 맡았다. 이렇게 보면 제시된 대화는 조선 후기의 상황에서 가능한 대화임을 알 수 있다.

경기 지역에 한하여 과전법이 실시된 것은 고려 후기 공양왕 3년인 1391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담배, 면화 등의 상품 작물이 재배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③ 국경 지대에서 개시 무역과 후시 무역이 이루어진 것 역시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④ 모내기법의 확산으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성행한 것도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⑤ 설점수세제의 시행으로 민간의 광산 개발이 활기를 띤 것도 조선 후기의 일이다. 광산에 '점(店)'을 설치하고 세금을 징수한 '설점수세제'가 시행된 것은 효종 2년인 1651년의 일이다.

28 - 병자호란

정답> ①

'과인이 덕이 부족하여 이 같은 불운을 만나 오랑캐의 침략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지난 정묘년에는 변란이 생겼을 때에 임시방편으로 강화를 허락하여 치욕을 감수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저 오랑캐가 외로운 형세로 깊숙이 들어왔으니, 사방의 원병이 이어 달려오고 하늘이 돕는다면 우리는 이길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여기서 '지난 정묘년의 변란'은 정묘호란(1627)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시된 '교서'는 병자호란(1636, 인조 14)과 관련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교서(敎書)란 국왕이 내리는 문서로, 조서(詔書)라고도 한다(명령서, 훈유서, 선포문의 성격을 가진 문서).

김상용(1561~1637)이 강화도에서 순절한 것은 병자호란 때의 일이다. 묘사(廟社)의 신주를 받들고 빈궁·원손을 수행해 강화도로 피난했다가 이듬해(1638) 1월 청군에 의해 성이 함락하자 성의 남문루(南門樓)에 있던 화약에 불을 지르고 순절하였다. 참고로 이때 김상용의 죽음이 스스로 분신한 것이 아니라 실화(失火) 때문이라는 이설도 있다.

오답 해설>

- ② 정문부가 길주에서 의병을 이끈 것은 임진왜란 때의 일이다(1592, 이때의 승전이 '북관대첩비'에 새겨짐).
- ③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한 것도 임진왜란 때의 일이다(1593.1).
- ④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산성에서 항전한 것은 정묘호란 때의 일이다(1627.3).
- ⑤ 포수, 사수, 살수로 구성된 훈련도감이 설치된 것은 임진왜란 때의 일이다(1593.8).

29 - 흥경래의 난

정답> ⑤

'다북동에서 봉기하여 한때 청천강 이북 지역을 점령했던 반란군이 정주성에서 마침내 관군에게 진압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관군은 주모자 중 도주한 우군칙, 이희저 등을 추격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사건은 순조 11년인 1811년 평안도에서 발생한 흥경래의 난임을 알 수 있다.

흥경래의 난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서북인에 대한 차별에 있었다.

오답 해설>

- ① 척왜양창의를 기치로 내건 사건은 동학 농민 운동이다. 1893년 3월에 열린 보은 집회에서 비로소 제기되었다.
- ② 몰락 양반 유계춘이 주도한 사건은 진주[임술] 농민 운동이다(1862, 철종 13).
- ③ 청군이 파병되는 결과를 가져온 사건은 임오군란(1882)과 동학 농민 운동(1894)이다.
- ④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 전개된 사건은 동학 농민 운동이다(제2차 봉기).

30 - 서원

정답> ⑤

'풍기 군수 주세붕이 안향을 제사하기 위해 사당을 세운 것이 시초'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백운동 서원, 1543(중종 38)]. 이어 '9곳이 2019년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교육 기관은 '서원'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서원은 소수 서원(경북 영주), 도산 서원(경북 안동), 병산 서원(경북 안동), 옥산 서원(경북 경주), 도동 서원(대구 달성), 남계 서원(경남 함양), 필암 서원(전남 장성), 무성 서원(전북 정읍), 돈암 서원(충남 논산), 이렇게 9곳이다.

서원, 특히 국가[왕조]로부터 공인 받은 사액 서원은 국왕으로부터 편액과 함께 서적 등을 받기도 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전국의 부·목·군·현에 하나씩 설립된 교육 기관은 향교이다.
- ② 입학 자격이 생원, 진사를 원칙으로 한 교육 기관은 성균관이다.
- ③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나 훈도가 파견된 교육 기관은 향교이다.
- ④ 유학을 비롯하여 율학, 서학, 산학을 교육한 교육 기관은 고려의 국자감이다.

31 - 신미양요(어재연)

정답> ①

왼쪽 자료는 (흥선) 대원군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남의 무덤을 파는 것은 예의가 없는 행동이지만 무력을 동원하여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자료는 영종 침사의 회답으로 '너희들이 이번 덕산 묘소에서 저지른 변고야말로 어찌 인간의 도리상 차마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두 서신은 흥선 대원군 집권기인 1868년 5월에 일어난 오페르트 도굴 시도 사건에 대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서신 속 영종 침사의 서신 속 '덕산 묘소'는 흥선 대원군의 부친인 남연군의 묘소를 가리킨다(충남 예산 덕산면 상가리 소재).

어재연 부대가 (강화도의) 광성보에서 항전한 것은 1871년 5월의 일이다(신미양요).

오답 해설>

- ② (강화도의) 외규장각 의궤가 국외(프랑스)로 약탈된 것은 병인양요 때의 일이다(1866.10).
- ③ 평양 관민이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운 것은 1866년 8월의 일이다.
- ④ 로즈 제독의 함대가 (강화도의) 양화진을 침입한 것은 병인양요 때인 1866년 10월의 일이다.
- ⑤ 양헌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한 것 역시 병인양요 때의 일이다.

32 - 임오군란

정답> ④

'난군(亂軍)이 궤를 침범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때에 나라 재정이 고갈되어 각 영이 군인에게 지급할 봉급을 몇 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영에 소속된 군인이 어느 날 밤에 부대를 조직하고 갑자기 궤내로 진입하여 멋대로 난리를 일으켰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는 1882년 6월에 발생한 임오군란임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자료 출처로 제시된 『성재집』은 대표적인 위정척사론자인 화서 이항로(1792~1868)의 문인인 성재 유종교(1821~1893)의 시문집으로 추정된다.

임오군란 결과 조선은 일본과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였고, 그로 인해 일본 공사관에 (일본군) 경비병이 주둔하게 되었다(1882.8).

오답 해설>

- ① 통감부가 설치된 것은 제2차 한일 협약(이른바 을사늑약) 때문이다(1906.2).
- ② (개혁 기구인)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된 것은 1880년 12월의 일이다.
- ③ 흥범 14조가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된 것은 1895년 1월의 일이다.
- ⑤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것은 1876년 4월의 일이다. 동년 2월에 체결된 조일 수호 조규, 이른바 강화도 조약 때문이다.



### 제4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 해설

#### 33 - 독립 협회

정답> ③

서울 주재 프랑스 공사인 '콜랭 드 플랑시'가 프랑스 외무부 장관인 '아노토'에게 보내는 전문이다. '서울에서 러시아 교관들과 재정 고문의 체류를 반대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거세졌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를 주도하는 '(가)를 따라서 전 국민이 같은 입장을 취하였고 길거리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길거리 모임'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박수가 터지는 가운데 의견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는 독립 협회가 1898년에 개최한 만민 공동회와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독립 협회는 만민 공동회에 이른 관민 공동회에서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1898.10).

오답 해설>

① (기관지로)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 계몽에 힘쓴 단체는 천도교이다(1906.6).

②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한 단체는 보안회이다(1904.7).

④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애국] 공채를 발행한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이다(1919.11).

⑤ 대성 학교와 오산 학교를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한 단체는 신민회이다.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평양에 대성 학교(안창호, 1908.9)를, 평북 정주에 오산 학교(이승훈, 1907.12)를 설립하였다.

#### 34 - 을미개혁

정답> ①

왼쪽 말풍선에는 '이번에 새로 구성된 내각에서 태양력을 채택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올해 11월 17일을 새해 1월 1일로 삼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내용은 김홍집 내각(제3차, 제4차)에 의해 추진된 을미개혁(제3차 갑오개혁, 1895.8~1896.2)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한 것은 을미개혁 때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② 전국 8도를 23부로 개편한 것은 제2차 갑오개혁 때의 일이다(1894.12~1895.8).

③ 황제 직속의 원수부를 설치한 것은 광무개혁 때의 일이다(1899.6).

④ 박문국을 설치하여 한성순보를 발행한 것은 1883년 음력 10월의 일이다.

⑤ 공사 노비법을 혁파하고 과거제를 폐지한 것은 제1차 갑오개혁 때의 일이다(1894.7~12).

#### 35 - 미주 지역에서의 민족 운동

정답> ④

'우리 학회에서는 '(가) 지역의 민족 운동을 조명하는 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답사 코스'로 '다뉴바 애국선열 기념비', '리틀리 한인 이민 역사 기념각', '장인환, 전명운 의거지', '공립 협회 회관 터'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지역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임을 알 수 있다. 장인환과 전명운이 스티븐스를 암살한 것은 1908년 3월의 일이며, (대한인) 공립 협회는 1905년 4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된 항일 애국 단체이다(안창호, 박선겸, 이대위, 김성무).

대한인 국민회는 (대한인) 공립 협회(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와 한인 합성 협회(하와이에서 조직)가 1909년 2월 처음 '국민회'로 통합되었다가 이듬해인 1910년 2월에 대동보국회가 흡수되어 출범한 단체이다. 이후 대한인 국민회는 해외 한인을 총망라한 단체가 되기 위하여 미주에 북미 지방 총회를, 하와이에 하와이 지방 총회를, 멕시코에 멕시코 지방회를 조직하였다.

오답 해설>

① 신흥 강습소가 세워진 것은 만주 서간도(남만주) 지역이다(1911.6).

② 해조신문이 발간된 것은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이다(1908.2).

③ (보재 이상설에 의해) 서전서숙이 설립된 것은 만주 북간도(동만주) 지역이다(1906년 8월경)

⑤ 조선 독립 동맹이 결성된 것은 중국 화북 지방이다(1942.7).

#### 36 - 청산리 대첩 이후의 사실

정답> ④

'천수평에서 북로 군정서의 기습 공격을 받아 참패한 일본군은 그들을 추격하여 어랑촌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어랑촌 전투에서) '교전 중 독립군 연합 부대가 합류하였고, 치열한 접전 끝에 일본군에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사건은 김좌진(1889~1930)이 지휘하는 북로 군정서군 등 독립군 연합 부대가 일본은 1,200여 명을 사살한 청산리 대첩임을 알 수 있다(1920.10).

ㄱ.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 작전을 추진한 것은 1908년 1월의 일이다.

ㄴ. 일제가 중국 군벌과 미쓰야 협정을 체결한 것은 1925년 6월의 일이다. 미쓰야 협정은 만주의 우리 독립군 근절을 위해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미쓰야와 만주 봉천성 경무국장 우진 사이에 체결된 협정으로, 원래 명칭은 '불령선인 취체 방법에 관한 조선 총독부와 봉천성의 협정'이다. 미쓰야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의 무기 휴대와 한국 내 침입을 엄금하여, 위반자는 검거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둘째, 재만 한인 단체를 해산시키고 무장을 해제하며 무기와 탄약을 몰수한다.

셋째, 일제가 지명하는 독립운동 지도자를 체포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넷째, 한국인 취체의 실황을 상호 통보한다.

ㄷ. 일제가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을 전개한 것은 1909년 9월과 10월의 일이다. 이로 인해 다수의 의병들이 희생되었는데, 참고로 1906년에서 1911년까지 항일 의병과 일본군경 간에 약 3천여 회의 전투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1만 7,779명이 전사하고 3,706명이 부상하였으며, 2,139명이 피체되었다는 통계가 있다.

ㄹ. 독립군이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 자유시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 12월의 일이다. 밀산 지역에 결집한 약 3천 5백여 명의 독립군은 대한 독립 군단을 조직(서일 총재)한 후 흑룡강 연안의 러시아령 자유시(알렉세예브스크)로 옮겨갔다. 하지만 일본과의 갈등을 우려한 소련 적군의 배신으로 무장 해제를 강요받게 되자 충돌하여 많은 사상자를 내고 말았다(자유시 참변, 1921.6).

이상에서 청산리 대첩 이후의 사실은, 'ㄴ과 ㄹ'이다.

37 - (대한) 독립 의군부

정답> ⑤

'임병찬(1851~1916)의 순지비(殉趾碑)'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스승인 최익현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고, 유배에서 돌아와 의병 봉기를 도모하던 중 고종의 밀지를 받아 '(가)'를 조직하였다'고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는 1912년 9월에 조직된 (대한) 독립 의군부임을 알 수 있다.

독립 의군부는 일제의 총리 대신과 조선 총독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할 것을 계획하였다. 또한 대규모 항일전을 준비 하였으나 발각되어 해체되고 말았다.

오답 해설>

① 정우회 선언의 영향으로 결성된 단체는 신간회이다(1927.2). 정우회 선언은 1926년 11월 합법 사회주의 단체인 정우회가 사회주의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밝힌 선언으로,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진영과의 협동 전선을 제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② 일제가 꾸며낸 105인 사건으로 해체된 단체는 신민회이다(1911.9).

③ 일제가 치안 유지법을 적용하여 탄압한 단체는 (공산당을 비롯한) 사회주의 단체들이다(1925.5).

④ 백산 상회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한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이다. 백산 상회는 백산 안희제(1885~1943)가 1914년 부산에 세운 민족 기업이다.

38 - 안중근 의사

정답> ②

왼쪽 말풍선에는 '이것은 그가 뤄순에서 재판받는 장면을 묘사한 취재 삽화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사형 판결을 받은 그는 동양 평화론을 저술하던 중 순국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삽화의 제목으로 '대한의군 참모총장 ○○○'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인물은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순국한 안중근 의사(1879~1910)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한 인물은 의열단원 나석주(1892~1926)이다(1926.12). 나석주는 조선 식산 은행에도 투척하였다.

③ (중국 상하이에서)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여 의거 활동을 전개한 인물은 백범 김구(1876~1949)이다(1931.10).

④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한 인물은 약산 김원봉(1898~1958)이다. 김원봉이 중국 국민당과 교섭하여 중국 난징 교외에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한 것은 1932년 10월의 일이다.

⑤ 명동 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여 중상을 입힌 인물은 이재명(1886~1910)이다(1909.12).

39 - 3.1 운동

정답> ④

'여성 독립운동을 이끈 김마리아(1892~1944)'가 제시되어 있다. '고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가)가 일어나자 여성들의 시위 참여를 촉구하던 중, 여학생들이 전개한 독립운동의 배후자로 지목되어 체포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앞서 '2·8 독립 선언에 참여'하였다는 내용도 나와 있는데 이를 통해 제시된 '(가)'는 1919년 3월 1일부터 본격화된 '3·1 운동'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3·1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일제는 제암리 학살 등을 자행하였다(1919.4.15). 제암리는 오늘날의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이다. 일본군은 여기서 무고한 양민 28명을 교회당에 몰아넣은 후 총격과 방화로 학살하고 다시 부근의 채암리에 가서 39명을 학살하였다.

오답 해설>

①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은 운동은 의열단의 의열 투쟁이다(1923.1). 조선 혁명 선언은 단재 신채호가 의열단장 김원봉의 의뢰를 받아 작성하였다.

② 신간회에서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한 운동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1929.11).

③ 박상진(1884~1921)의 주도로 대한 광복회가 (대구에서) 결성된 것은 1915년 7월의 일이다.

⑤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확산된 운동은 국채 보상 운동이다(1907.2).

40 - 위당 정인보(민족 문화 수호 노력)

정답> ③

'민족 문화 수호를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가 나오고, 이어 '일제의 역사 왜곡과 동화(同化) 정책에 맞서 우리의 말과 역사를 지키고자 헌신한 인물들의 활동에 대해 조사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제시된 인물들은 신채호, 백남운, 정인보, 이운재, 최현배이다.

위당 정인보(1893~1950)는 민족의 얼을 강조하고 1930년대에 [민세 안재홍(1891~1965)과 함께] 조선학 운동을 추진하였다(1934~1938).

오답 해설>

① 잡지 한글의 간행을 주도한 인물은 외솔 최현배(1894~1970)이다(1927.2). 주시경의 제자들인 권덕규, 이병기, 최현배, 정열모, 신명균 이렇게 다섯 사람의 동인지의 성격을 띠었다. 그리고 이때의 잡지 한글은 1928년 10월에 휴간되었다가 1932년 5월에 조선어 학회 기관지인 학술잡지로 복간되었다. 여기서는 이운재가 주간을 맡기도 하였다.

②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에 참여한 인물은 한미 이운재(1888~1943)이다(1933.10).

④ 애국심 고취를 위해 을지문덕전을 집필한 인물은 단재 신채호(1880~1936)이다.

⑤ 조선사회경제사에서 식민 사학의 정체성론을 반박한 인물은 백남운(1894~1978)이다(1933).

41 - 대한민국 건국 강령

정답> ①

'대한민국 임시 정부 공보 제42호'라는 제목 하에, '3월 18일 임시 의정원에서 임시 정부 대통령 이승만 각하를 임시 헌법 제 21조 제14항에 의하여 탄핵하고 심판에 회부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요컨대 임시 정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탄핵안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어 '3월 23일에 임시 의정원에서 임시 정부 대통령 이승만을 심판, 면직하고, 같은 날 박은식을 임시 헌법 제12조에 의하여 임시 정부 대통령으로 선거한' 내용이 나와 있다. 이승만이 임시 정부 대통령직에서 탄핵된 것은 제시된 대로 1925년 3월 23일의 일이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조소앙의) 삼균주의에 바탕을 둔 건국 강령을 발표한 것은 1941년 11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② 무장 투쟁을 위해 (남만주 지역에 임시 정부 직할대로) 육군 주만 참의부를 조직한 것은 1924년 6월의 일이다.

③ [노백린의 주도로] 독립군 비행사 양성을 위해 한인 비행(기) 학교를 설립한 것은 1920년 2월의 일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소도시 윌로우스(Willows) 시에 세워져 일명 '윌로우스 비행 학교'로 부르기도 하였다. 참고로 한인 비행(기) 학교는 동년 7월 괄림대에 의한 비행가양성사(비행사양성소) 설립으로 이어졌다.

④ 국민 대표 회의를 개최하여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한 것은 1923년 1월에서 6월까지의 일이다.

⑤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단[김규식]을 파견하여 외교 활동을 전개한 것은 1919년 5월의 일이다.

42 - 물산 장려 운동

정답> ①

'살자는 부르짖음'이라는 제목 하에 '우리의 소유는 점점 줄어가고 살림살이는 나날이 가난해 간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 아무쪼록 조선 물산을 몸에 걸고 조선 물산을 입에 넣고 조선 물산을 팔며 사고 조선 물산을 무엇에나 쓰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는 1920년 8월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물산 장려 운동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ㄱ. 물산 장려 운동은 1920년 8월 평양에서 조만식 등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옳은 설명이다.

ㄴ. 자작회, 토산 애용 부인회 등이 활동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ㄷ. 국채 보상 기성회를 중심으로 (대구에서부터) 전개된 민족 운동은 국채 보상 운동이다(1907.2). 참고로 물산 장려 운동은 조선 물산 장려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ㄹ. 일본, 프랑스 등의 노동 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은 민족 운동은 원산 총파업이다(1929.1~4).

<보기>에서 물산 장려 운동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ㄱ과 ㄴ'이다.

43 - 일제의 무단 통치(1910년대)

정답> ②

'한일병합 이후 일본 정부가 한인의 사업 경영에 제한을 주기 위하여 총독부제령(總督府制令)으로서 (가)를 공포해서 허가주의를 채택(일본인에게는 관대하고 한인에게는 가혹)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는 1910년 12월에 공포된 (신고제) 회사령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1920년 4월에 이르러 일본 자본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종래의 (신고제) 회사령이 폐지되고, 신고제(계출제) 허가제로 전환되었다.

범죄 즉결례가 제정된 것은 1910년 12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제2차 조선 교육령이 시행된 것은 1922년 2월의 일이다.

③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제정된 것은 1941년 2월의 일이다(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 제정은 1936년 12월).

④ 농민의 자력갱생을 내세운 농촌 진흥 운동이 실시된 것은 1932년이다(~1940). 조선 총독부 준도로 이루어진 관제 농민 운동이다.

⑤ 국가 총동원법이 제정된 것은 1938년 4월의 일이다.

44 - 형평 운동

정답> ④

'이 탑은 진주에서 시작된 이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설립한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탑에는 이 운동을 주도한 단체가 표방한 '공평(公平)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愛情)은 인류의 본량(本良)이다.'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이 운동'은 1923년 4월 경남 진주에서부터 시작된 형평 운동임을 알 수 있다(조선 형평사).

형평 운동은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를 목표로 하였다.

오답 해설>

① 잡지 동광(東光)은 1926년 5월에 발행되었다. 흥사단 계열의 개량주의적 민족 운동 단체인 수양 동우회의 기관지 성격을 띠었다(수양동우회는 1926년 1월 조직).

② 김광제 등의 발의로 시작된 운동은 대구에서부터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국채 보상 운동이다(1907.2).

③ 한일 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된 운동은 1929년 11월에 발생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

⑤ '배우자 가르치자 다함께 브나로드'를 구호로 내세운 운동은 동아일보의 주도로 전개된 브나로드 운동(일종의 '농촌 계몽 운동')이다(1931~1934).

45 - 조선 의용대

정답> ⑤

'오늘날 동양의 강도 일본 군벌은 아시아를 침략하고, 나아가서는 다년 간의 헛된 꿈인 세계 정복으로 옮기려 하는 광기가 되어, 중화민국 침략 전쟁을 개시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우리는 우선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의 기치 아래 일치단결하고, 동시에 장[제스] 위원장 아래 함께 모여, (가)를 조직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는 중국 관내(關內)에서 최초로 결성된 한인 무장 부대인 조선 의용대임을 알 수 있다(1938.10).

참고로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은 1937년 12월 중국 난징에서 조선 민족 혁명당, 조선 민족 해방자 동맹, 조선 혁명자 연맹(일명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 조선 청년 전위 동맹 이렇게 4개 단체가 참가하여 결성된 좌파계의 항일 민족 연합 전선 단체이다.

오답 해설>

①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승리한 군사 조직은 조선 혁명당 산하의 조선 혁명군(양세봉 사령)이다(1932.3~7).

②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한 군사 조직은 한국 광복군이다(1945년 3월 국내 정진군 총지휘부 설립).

③ 동북 항일 연군으로 개편되어 유격전을 펼친 군사 조직은 동북 인민 혁명군이다(1936.3). 동북 인민 혁명군은 1933년 9월 중국공산당 만주성 위원회의 주도로 조직된 무장 부대로, 다수의 한국인이 가담하였다.

④ 쌍성보에서 중국 호로군과 연합 작전을 전개한 군사 조직은 한국 독립당 산하의 한국 독립군(지청천 사령)이다(1932.9/1932.11). 참고로 호로군은 만주 지역의 동북 군벌[장작림과 그 아들인 장학량] 계통의 부대[지방군]이다.

46 - 장면 정부 시기의 사실

정답> ⑤

'민주당의 윤보선 의원이 국회에서 208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개정된 헌법에 따라 선출된 윤보선 대통령'이 나라를 대표하고 이 러저러한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헌법'은 4·19 혁명 결과 1960년 6월에 개정된 헌법(제3차 개헌)임을 알 수 있다. 이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의원 내각제와 양원제를 규정한 점이다.

제3차 개헌에 따른 양원제 규정에 따라 제2공화국[장면 정부] 시기의 국회는 민의원, 참의원의 양원으로 운영되었다.

오답 해설>

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된 것은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9월의 일이다(이승만 정부 시기).

②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조직된 것은 유신 헌법(제7차 개헌)이 공포된 1972년 12월의 일이다(박정희 정부 시기).

③ 2년 임기의 국회의원이 선출된 것은 제헌 헌법 하에서였다. 1948년 5·10 총선거,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기에 해당한다.

④ 조봉암을 중심으로 진보당이 창당된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6년 11월의 일이다.

47 - 남북 총선거 실시 유엔 총회 결의문

정답> ⑤

'총회가 당면하고 있는 한국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인 자체의 문제이며 그 자유와 독립에 관련된 문제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총회는 ... 조속히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을 설치하여 한국에 주재케 하고, 이 위원단에게 한국 전체를 여행·감시·협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결의문은 유엔 감시하의 남북 총선거 실시를 의결한 1947년 11월 14일의 유엔 총회 결의문(결의안)임을 알 수 있다. 연표의 (마) 시기에 해당한다.

48 - 부·마 민주 항쟁

정답> ①

'이것은 부산과 마산 지역의 시민과 학생들이 일으킨 (가)를 기념하는 탑'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촉발된 (가)는 민주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2019년에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는 1979년 10월에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발생한 '부·마 민주 항쟁'임을 알 수 있다.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난 시기인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피살(10·26 사건)됨으로써 유신 체제가 붕괴되었다.

오답 해설>

② 시민군이 조직되어 계엄군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은 1980년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

③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되는 결과를 가져온 민주화 운동은 1960년의 4·19 혁명이다.

④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1980년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2011년 등재).

⑤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대학 교수단의 시위행진이 있었던 민주화 운동은 1960년의 4·19 혁명이다.

49 - 6.29 민주화 선언

정답> ⑤

제시된 선거 포스터들에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로 노태우(기호 1), 김영삼(기호 2), 김대중(기호 3), 김종필(기호 4) 등이 나와 있다. 또 오른쪽 말풍선에는 '마침내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대통령 선거'는 1987년 12월 16일에 실시되었던 제13대 대통령 선거임을 알 수 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이처럼 국민들의 직선제로 치러질 수 있었던 것은 호헌 철폐 등을 내세운 1987년 6월 민주 항쟁으로 인해 전두환 정부 측이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동년 10월에 여야 합의에 따른 제9차 개헌(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 현행 헌법)이 단행되었다.

**오답 해설>**

- ① 3당 합당으로 (거대 여당인) 민주 자유당이 창당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0년 1월의 일이다.
- ② 국제 통화 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7년 11월의 일이다('외환 위기' 발생).
-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발췌 개헌안이 통과된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2년 7월의 일이다.
- ④ 여당 부통령 후보(이기봉) 당선을 위한 3·15 부정 선거가 자행된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60년 3월의 일이다(제4대 정부통령 선거). 이로 인해 결국 4·19 혁명이 일어나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였다.

**50 -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

**정답> ④**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는 사회 복지사의 말이 나오고 이를 받아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을 지난해 10월부터 [처음] 실시했다'는 대통령의 말이 나와 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보장 법률로 1999년 9월에 처음 제정되었다(시행은 2000년 10월부터). 따라서 제시된 자료 속 특별 생방송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에 해당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김대중 정부 시기, 1998.2~2003.2).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6월,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 선언' 이 이루어졌고, 동년 8월 한국의 현대아산(주)과 북한 사이에 공업지구 건설이 합의되었다. 그러다 2002년 8월에 개성 공단 착공 추진이 최종 합의되었다.

**오답 해설>**

- ① 10·4 남북 공동 선언이 채택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10월의 일이다.
- ②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 서명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12월의 일이다.
- ③ (7·4 남북 공동 성명의 합의에 따라) 남북 조절 위원회가 설치되어 통일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11월의 일이다.
- ⑤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과 예술 공연단 교환이 실현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5년 9월의 일이다.

- 이상 -